

## 참교추 회원 기사란

## 『민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성규 목사 | 광명민음교회



교회에 대한 고민은 모든 목사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교회에 대하여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통하여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비록 부족한 목사의 목회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사를 이 교회를 위해 쓰임하고 일하기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목사는 자신의 사역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다른 사역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 또 성도들의 말들을 통하여 자신의 목회사역에서 진보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에는 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이 숨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성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 받으려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이런 유혹에 빠져들 때 우리의 사역은 실패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공이 아닙니다.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사역에 역사해 주시고, 가르치는 일들과 영혼을 돌보는 일들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그 마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마음에서 일하실 때 목회사역도 간절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은 모든 성도들과 목사들의 고백이어야 하며

그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의 일원이 된 것은 믿음의 여정 중에서 얻은 귀한 만남입니다. 우리시대의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너무나 멀어졌기에 우리의 목회사역도 새로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과의 친교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 『아름다운 교회』

김훈 목사 | 참사랑교회



코로나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최근에 크게 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어리석고 나태함을 깨닫고 회개한 일이었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전염병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모이는 것에 대한 불평이나 반감을 가진분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생기기도 하면서, 저는 교인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져 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가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니 공동체가 힘이 있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무기력과 교만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인데 말입니다. 은근히 이러한 것들에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서를 묵상하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만나지 못해도 마치 한몸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세워지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무기력한 저에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교회란 이런 것이란다” 라며 부드럽게 저를 꾸짖으

시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고 한 바울 사도의 말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 어쩌면 바울 사도가 마치 빌립보 교회에게 사랑 고백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품고 바울 사도를 돕고 있던 에바브로디도는 위독한 상태에서도 교회의 마음을 알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가 맡긴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와 사도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서야 겨우 희미하게나마 참된 교회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교회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후 새벽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름

다운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그러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텅빈 공간에서 카메라를 보며 예배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가 목회와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저를 포함해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모든 교회가 아름답고,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년전 개척할 때 무척이나 교만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서야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변함없이 참된 교회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참교추 회원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교추 칼럼

## 거룩한 계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십니다. 세상이 그의 영광을 업신여기고 더럽힐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셨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사람을 세우십니다. 역사 속 모든 국면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깃뻛힌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 교회 속에 나타나는 계보

역사적으로 교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의 '계보(系譜)'가 있었습니다. 1세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계보의 맥(脈)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보에 속한 자들은 소수입니다. 다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것과 뒤섞고 진리를 혼탁하게 할 때,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이리우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을 부인하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인 신성을 낮추고 멸시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수는 가톨릭 교회의 어그러진 진리에 찬동하였으나, 거룩한 계보에 속한 루터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 어거스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계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은 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4세기 인물인 어거스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운 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가 경멸한 교리의 토대 위에 종교개혁이란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펠라기우스의 영향 아래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를 부인하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거스틴이 일어나 진리를 수호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외친 것입니다.

16세기에는 루터, 칼빈, 쾰빙글리 등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당시 교회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장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깊은 망각 속에 방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제거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주요한 목적으로 표명하는 자는 백 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하다”고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아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하고 부패한 중세 교회를 향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종교개혁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어올린 것입니다.

16-17세기에는 '신앙 고백서'의 작성자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네덜란드의 '벨기 신앙고백서', 프랑스의 '프랑스 신앙고백서', 스위스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들은 개신교를 핍박하며 칼과 채찍과 불로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작성자들은 자신의 믿는 바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각오로 신앙고백서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과 화란 개혁파들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룩한 계보라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에는 부흥의 주역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휘트필드, 찰스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등을 세우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당시 교회는 어둡고 혼탁했습니다. 합리주의에 의해 이성이 강조되어 고등비명을 수용하며 쇠락해 갔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개혁파 정통신학으로 변질되며 메마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경건주의가 일어났고 그 영향으로 신학과 교리를 경시하는 풍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은 부흥의 주역들을 세우십니다. 각 지역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벽의 여명과 같이 편안하게 알리시며 위엄을 회복하십니다.

19세기에는 찰스 스펄전, J.C. 라일 감독, 로버트 맥체인, 피에르 보나르 형제들, 헤르만 바빙크 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습니다.

20세기에는 로이드 존스, 캠벨 몰간, 존 맥아더, 존 파이퍼, 제임스 패커, R.C. 스프롤, 마크 데버 등이 거룩한 계보를 잇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자신의 영광을 위하신 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 참교추를 향한 소망

저는 참교추가 이러한 거룩한 계보를 잇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며 역사 속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던 사람들의 맥을 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본(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신 역사를 고대하는 모임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바람이 참으로 이와 같다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단지 우리에게서만 끝내도록 앉아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신실히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모여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일할 것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전형적인(typical)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화려하고 성대한 이벤트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 거대한 세를 규합함으로 이루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을 이전과 같이 평범하게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감동과 스파르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의 현상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불씨를 품어 사방으로 번지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함으로 감동하는 불을 품고 자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흘날리는 것과 같이 가벼운 삶을 바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참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거룩한 계보의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 그리고 참교추 속에서 거룩한 계보에 속하여 참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널리 울려 퍼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 月刊 참교추

2021년 5월호 통권 4호

## News

## 6월 정기 모임

- 6월 14일(월) : 10시 30분
- 오직 하나님께 영광 [15-23장]
- 삼일절체와 구속언약 [289-365p]

## 5월 신입회원 모임

- 5월 17일(월) : 오후 8시
-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Part 4
- 참교추 컨퍼런스 2016

## 5월 정기 세미나

- 5월 24-26일(월-수 / 2박 3일)
- 개혁 신앙의 정수(부흥과 개혁사)
- 속속 근초 리조트



광명민음교회(이성규 목사)



버임영한인교회(황재찬 목사)



참사랑교회(김훈 목사)

## ♣ 참교추 정기모임 조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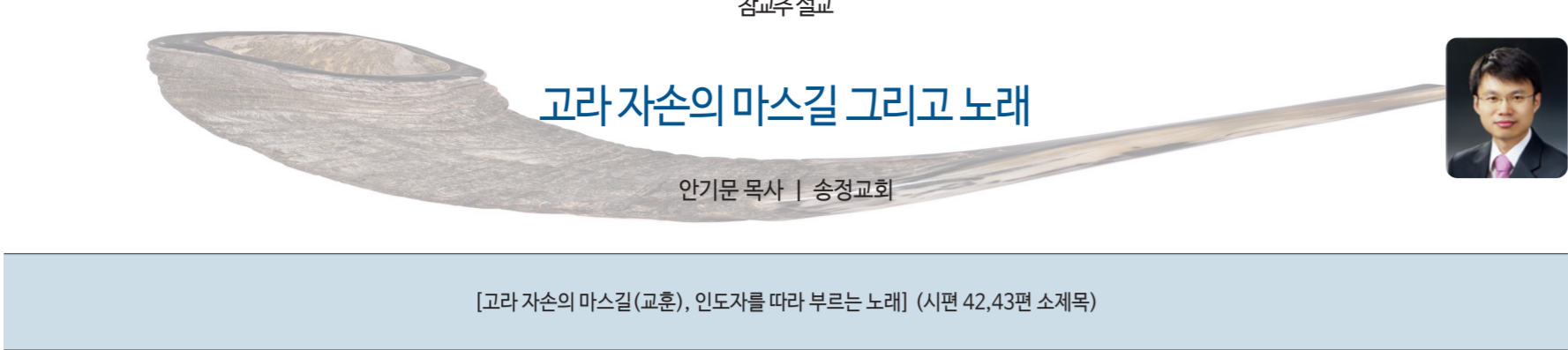
1조	김영제 배국환 김명일 강성대 서재길 김성민 임정택 김완술
2조	김훈 안기문 김용석 김시은 김영남 정병운 김중구 강성일 이준동
3조	이성규 최은상 박지성 박경태 김종원 강육남 오준성 김대성 박상우
4조	정중남 강동훈 이대원 정우열 김학재 강사명 이성준 차지태
5조	권오인 이원범 박충성 김선민 신용화 김양수 황병진

## ♣ 참교추 일정안내

정기 모임	매월 3번째주 월요일
정기 세미나	5월 마지막주 월-수 (5월 24-26일)
컨퍼런스	10월 마지막주 월요일(10월 25일)
부부 수련회	코로나로 일정 연기
신입회원 나눔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 ♣ 2021년 회원교회

• 광명민음교회(광명)	• 영남교회(대구)
• 광야의샘교회(수원)	• 오빈교회(양평)
• 높은산교회(성북)	• 은혜의샘교회(하남)
• 두루선교교회(서초)	• 주님의샘교회(수원)
• 물안동산교회(강서)	• 참사랑교회(동대문)
• 백마누리교회(일산)	• 충만한교회(사흥)
• 생철교회(김해)	• 하늘가곡교회(금천)
• 세계로교회(시흥)	• 하늘기쁨교회(부천)
• 송정교회(포천)	• 하늘영광교회(강동)
• 심플교회(시흥)	• 함양민들레교회(함양)
• 양무리교회(강동)	• 버임영한인교회(영국)



##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리고 노래

안자문 목사 | 송정교회

[고라 자손의 마스길(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 42,43편 소제목)

### 들어가며

시편 42, 43편의 소제목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를 함께 상고해보기를 원합니다.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시편에 대해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적절합니다. 시편은 참으로 우리가 겪는 현실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답을 찾도록 이끌어 줍니다. 시편 42, 43편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라건대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합당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 고라의반역

표제어의 앞부분인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입니다. 또한 그는 '고핫 족속'의 지도자로서 성막의 성물을 옮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맡기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고라는 이 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고라는 성물을 맡은 자신의 일을 하찮게 여기고 제사장 직분을 탐냈습니다. 아론보다 자신 이 더 제사장에 어울린다 생각한 것입니다.

고라는 분명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각 지파 지도자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의 언변은 뛰어났을 것이고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라가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친형 아론을 편파적으로 대제사장 삼았다고 불평하며 회중을 선동한 것입니다. 고라는 르우벤 지파의 아비람, 다단, 온과 함께 당을 짓습니다. 또한 각 지파의 명망있는 지도자 250명을 회유하여 반역 모임을 규합합니다.

이 때 모세는 어쩌든지 고라 무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힘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백성들을 선동하여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 무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할 영광을 들고 회막 앞에 선다. 그때 여호와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에 가담한 고라 무리와 회중을 치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로 진멸치는 않으십니다.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삼켜 벌하신 후, 고라에게 가담한 250명의 지도자들을 여호와와의 불로 태우심으로 그치십니다.

### 남겨진 고라 자손들

매우 충격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일 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온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누가 크게 깨달았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유아까지 모두 땅에 심겨질 때에 살아 남은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만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오다(유 1:11b)". 반대로 말하자면 고라의 아들들은 패역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고라가 반란에 동참하려고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라 족속 중 고라의 아들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한 후 남겨진 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상상하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에서 '고라'라는 이름은 부정적인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비극적인 가족사가 늘 어두운 그림자처럼 고라 자손들에게 드리워져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라 자손들

을 향해 범죄자, 반역자의 자손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범하면 반역자인 '고라'를 닮아서 그렇다며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분명 당연한 현실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함몰되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들이 지은 여러 시편들입니다. 그들이 노래한 시들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극복했음을 보여줍니다.

### 극복의 이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조상 고라가 했던 일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감으로 극복합니다. 먼저, 반역자 고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들은 맡겨진 소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성전이 완공 됨으로 더 이상 성물을 옮길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성전에서 음악과 관련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हत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대하 20:19)" 그리고 성전 문지기가 되어 성전을 수호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또한, 조상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쁨 부르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시84:9)" 지도자를 귀히 섬기고 복중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배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예배를 통해 그들의 모든 아픔이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시들을 많이 남긴 것입니다.

### 기쁨의 노래, 슬픔의 노래

이제 시편 42, 43편의 성경을 생각해봅시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시편의 두 가지 성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노래'라는 성격입니다. 이 시편은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노래는 언제 부르는 것입니까? 주로 기쁨 때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쁨을 느끼게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묵상할 때 마음이 감동되고 고양되어 노래하게 됩니다. 노래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공동체적'인 노래를 '처음'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목도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군대를 향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압도되어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처럼 노래합니다.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 우심ियो 말과 그 탄 자를 바위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यो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또 언제 노래합니까? 기쁨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에도 노래할 것입니다. 슬픔 때 노래를 부르면 부르는 자의 감정이 더 크게 고양됩니다. 고라 자손들은 비극적 환경에서 경험하는 깊은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지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사심입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아픈 역사를 연료로, 노래를 도구삼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탁월한 방법입니다. 슬픈 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냥 슬퍼만 할 수 없

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그에게 서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이 이처럼 기쁨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노래했던 가사들을 시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이 노래들을 부름으로 동일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마스길

시의 두 번째 성격을 살펴봅시다. 이것은 '마스길'이란 성격입니다. 마스길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누군가를 지혜롭게 한다', '가르친다'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주에서 '교훈'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2편은 '교훈하는 노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의 성격입니다. 세상의 시(詩)들과 다른 점입니다. '시편'이 참으로 '시편' 될 수 있는 특징이바로 '마스길'입니다.

세상의 다른 시(詩)들도 슬픈 감정을 노래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참된 교훈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세상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런 교훈은 다른 시에서는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 노래들은 단지 히노애리만을 표현할 뿐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슬픔의 노래에도 참된 교훈이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에도 단지 기쁘게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닌,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시편'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그가 저술한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책에서 시편 42편의 말씀 안에서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적 침체는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엘리야도 일시적으로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편 42편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바로 고라 자손이 비극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벗어나갈 수 있던 이유인 '하나님께 대한 교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시편 42, 43편의 후렴구에서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서 고라 자손들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외칩니다.

고라 자손이 우리를 향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hope in God'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엘로힘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가 실제로 나타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때에 고라 자손이 여러 가지 아픈 현실 가운데서 불러왔던 그 노래를 우리도 동일하게 감사함으로 외칠 것입니다.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흔들리고, 아이들은 미디어에 중독되며, 건강은 약해지고, 재정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고라 자손과 같이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분명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가 행하신 일을 노래합시다. 이것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며 '노래'입니다.

### 참교추 경기도임

## 존 페스코의 『삼위일체와 구속언약』

3부 3장 예정

### 그리스도의 인성

구속 언약 안에서 성자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성육신을 수반합니다. 구속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배상 및 영생의 획득을 위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성자 하나님의 존재에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하거나 창조하지 않으실 자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속하거나 구속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 그리고 성육신 모두가 필연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창조와 구속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임의적 (inessential)인 것이지 필수적(essential)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부께서 구속을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또한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거나 또 보내시지 않을 자유가 있으십니다. 보냄을 받으신 성자 또한 태자의 구속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지 않으신 로고스”와 “성육신하실 로고스”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 성령의 ‘성화’를 통하여서 택자를 구속하시기 자유롭게 결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자는 분명 창세 전 “육체를 입지 않으신 로고스”로 존재하셨습니다. 바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항상 “성육신하실 로고스” 또는 “성육신하신 로고스”로서만 존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자께서는 성육신이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는 자유로운 존재이십니다. 맥코맥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의 행위(성육신 하실, 성육신 하신)보다 우선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행위가 그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자의 인성 또한 필

연이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 성자가 언제나 ‘성육신하실 로고스’가 아니시란 것입니다. 그 분은 ‘육체를 입지 않은 로고스’이시시지만(구속 언약을 맺기 전, 성육신과 관계 없는), 구속언약 안에서 ‘성육신하실 로고스’가 되실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셨고, 마침내 역사 속에서 ‘성육신 하신 로고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성육신 하신 로고스’로 존재하심을 택 하셨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입니다. 니케아 및 칼케돈 기독교의 중심에서 말함과 같이 성육신은 성자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타당한 죄인들을 향한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자유로운 성육신의 동기입니다.

### 언약의 보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언약의 보증인으로 성부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구속 언약 안에서 성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인들을 구속 하실 것을 서약하십니다. 이 서약에서 주목할 점중 하나는 결코 수동적인 순종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배상(수동적인 순종)만큼 중요한 것은 영생의 획득(능동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서약은 능동적인 순종을 우선하여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성자는 종말론적인 상급을 얻기 위하여 행위언약에 요구된 온전한 순종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공인(public person)으로서 모든 인류의 언약의 머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행위 언약에 능동적으로 신실해야만 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 영생을 획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담은 실패하고 맙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는 구원론을 이야기하기 전, 세상의 종말의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속 언약 안에서 성자의 능동적 순종(종말론, 영생)이 수동적 순종(구원론, 배상)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뒤에 은혜 언

약)이 옴과 같이 능동적 순종이 수동적 순종의 앞에 놓임)

첫째 아담은 종말론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온전히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성자의 능동적 순종(종말론적)은 수동적 순종(구원론적)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자의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는 죄 없는 제물이 되셔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곧 온전한 율법 준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있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단지 그의 수동적 순종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기에 앞서 종말론적인 생명(영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예전의 선결 조건이 바로 능동적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율법 위에 계셨던 성자는 취하신 본성을 통해 자신을 율법 아래 두셨다. 다시 말해,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 영생을 획득하시기 위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자연적인 관계 아래에만 아니라 또한 행위 언약의 관계 아래 자신을 두셨다. 여기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아담이 성취하지 못한 것 곧 행위 언약의 요구를 이행하는 일의 성취였다. 성부는 아담의 소명을 고쳐 쓰지 않으시고 대신 아담이 실패한 일을 성취하도록 자신 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은혜 언약은 결코 다른 기초나 토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의 근거인 구속 언약에서 성자 외에는 누구도 성부로부터 언약 보증인으로 임명되거나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의롭고, 무죄하며, 존귀한 자의 존재를 가정하여 생각한다면 할지라도 그리스도 외에는 구속을 성취할 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필립사프 교회사 전집 '사도적 기독교' 204~206p를 축소 발행한 것입니다.

- [주후 58~60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옥중 생활을 하게됩니다. 이때는 벨릭스와 베스도가 총독으로 있던 시기로서, 베스도는 60년이나 61년에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 연대는 아울러 사도의 생애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의 연대를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 [주후 61~63년] 바울이 로마에서 첫번째로 투옥됩니다.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 [주후 64년] (타기투스에 따르면 네로의 재위 10년) 네로의 박해가 발생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그 무렵이나 (전승에 따르면)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순교했습니다.
-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티투스(Titus)에 의해 멸망합니다.
- [주후 98년] 트리아누스의 즉위 후에 사도 요한이 죽습니다. 공공복음서들, 사도행전, 묵회 서신서들,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유다서의 저작 연대는 이 책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주로 60~70년에 저작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조셉 알라인 / 생명의 말씀사 / ISBN 9788904166411

항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입니다.어쩌면 이시대의대중적인 호응에 젖어있는그리스도인들, 회심의 증거를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알라인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듯 성경에 철저히 근거하여 외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회심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행세를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경고, 아울러 회심을 돕는 방법과 동기들을 조리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소 아프게 다가오는 말들이 많지만 알라인은 대단히 애절하고 진지하게 회심서 우리의 자를 부릅니다. 설사 자신이 회심했다 하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자신을 진단해 보고, 회심한 자의 특징이 있는자를 살펴보는 일은 유익할 것입니다.